

Industry Report

2020-09-21

[포스트 코로나(17)]

디지털 뉴딜 주인공은 나야 나 + 2 선

커버리지종목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현대오토에버(307950)	NR	
케이아이엔엑스(093320)	NR	

디지털 뉴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재정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인 디지털 뉴딜이 주목 받고 있다. 즉,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의 형태로 추진 될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을 구성하는 한 축인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새로운 자본이자 성장 동력이다. 우선 가치 있는 데이터로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경제의 부가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디지털 뉴딜은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환경하에서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 할 예정이다. 즉,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거나 재정립 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 테마 펀드

9월 3 일에 개최된 제 1 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정부 예산은 물론 연기금/정책금융기관, 민간의 참여로 20 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와 더불어 금융기관 스스로 뉴딜투자처를 발굴해 민간 뉴딜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등을 유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딜정책과 맞물리면서 디지털뉴딜 테마 펀드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관련 산업 성장은 물론 주식시장 상승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뉴딜 유망종목 + 2 선: 현대오토에버(307950), 케이아이엔엑스(093320)

표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투자 유망주

구분		종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삼성에스디에스,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한컴MDS
	AI	라온피플
	인프라	케이아이엔엑스, 에치에프알
	보안	파이오링크
	하드웨어	삼성전자, 싸이맥스, 인텍플렉스, 엑시콘
언택트 라이프	결제	NHN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갤러시아컴즈
	핀테크	웹캐시
	콘텐츠	풀어비스, 스튜디오드래곤, 미스터블루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재택근무	알서포트
	신선식품	지어소프트
	클라우드	더존비즈온
	오프라인제품	에코마케팅
	홈코노미	한샘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서비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레이
	인프라	메디아나,제이브이엠
	백신	SK케미칼
	CMO	에스티팜, 바이넥스, SK, 삼성물산, 동구바이오제약
	바이오	엔지켐생명과학, 테고사이언스
	건강기능식품	콜마비엔에이치, 서흥, 노바렉스, 코스맥스엔비티, 코스맥스비티아이
	의료용 로봇	고영
재정정책	인프라	LS, LS ELECTRIC, HDC아이콘트롤스, 대림산업, 현대상사
	풍력	LS, SK디앤디, 동국S&C, 씨에스베어링, DMS
	수소	효성,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미코
	전기차	대보마그네틱, 나라엠앤디
	스마트팜	그린플러스

자료: 하이투자증권

I. 디지털 뉴딜 본격화

1.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관련하여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것에서 시작돼 5월 7일에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발표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병행을 추진, 경제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즉,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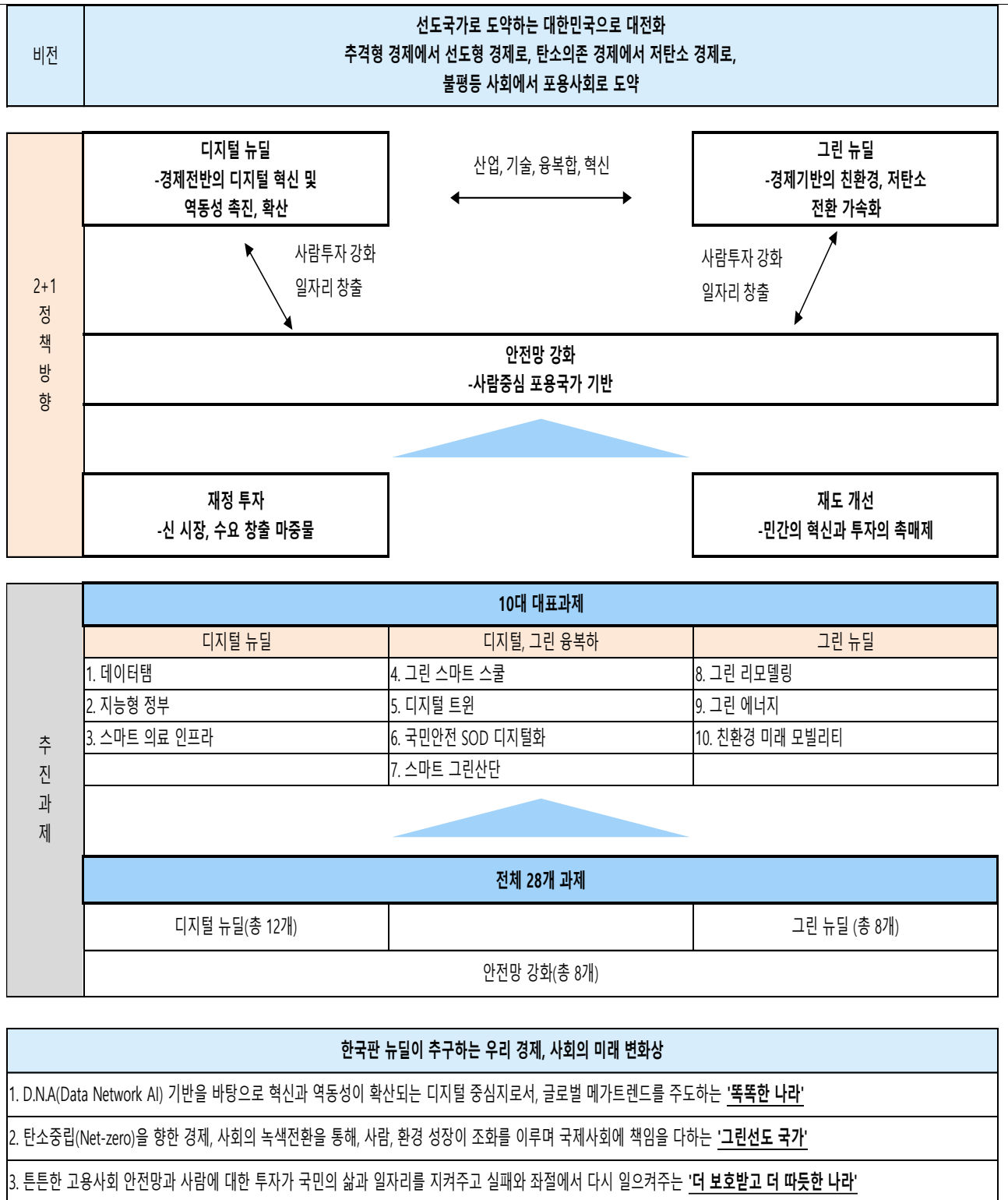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으로 추진된다.

그린뉴딜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또한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편, 한국형 뉴딜 추진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 114조 1000억원이 투입되고, 민간기업이 50조원 가량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재정 및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1. 한국판 뉴딜의 구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표2.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단위: 조원, 만개)

	분야	과제	'20추 ~22	'20추 ~25	일자리
총계			49.0	114.1	190.1
디지털뉴딜	합계		18.6	44.8	90.3
	1. D.N.A. 생태계 강화	소계	12.5	31.9	56.7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3.1	6.4	29.5
		2. 1, 2, 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 확산	6.5	14.8	17.2
		3.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2.5	9.7	9.1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0.4	1.0	0.9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소계	0.6	0.8	0.9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3	0.3	0.4
		6.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3	0.5	0.5
	3. 비대면 산업 육성	소계	1.1	2.1	13.4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0.2	0.4	0.5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0.6	0.7	0.9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0.3	1.0	12.0
	4. SOC 디지털화	소계	4.4	10	19.3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3.7	8.5	12.4	
11.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0.6	1.2	1.4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0.1	0.3	5.5	
그린뉴딜	합계		19.6	42.7	65.9
	5.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소계	6.1	12.1	38.7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6	6.2	24.3
		14.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2	2.5	10.5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3	3.4	3.9
	6.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소계	10.3	24.3	20.9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1	2.0	2.0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6	9.2	3.8
		18.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5.6	13.1	15.1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소계	3.2	6.3	6.3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업 조성	2.0	3.6	4.7
20.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1.2	2.7	1.6	
안전망 강화					
합계			10.8	26.6	33.9
1. 고용사회 안전망	소계		9.3	22.6	15.9
	2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8	3.2	-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4.3	10.4	-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3.0	7.2	3.9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0.9	1.2	11.8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3	0.6	0.2
2. 사람투자	소계		1.5	4	18
	26.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0.5	1.1	2.5*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0.6	2.3	12.6*
	28.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4	0.6	2.9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의 취업자수 추정치(훈련인원, 취업율(로 디지털, 그린 일자리와 일부 중복 가능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2. 디지털 뉴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재정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인 디지털 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내용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D(데이터),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개방, 활용을 통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에 2025년까지 31 조 9000 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56 만 7000 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D.N.A 생태계 강화에 대한 추진과제로 데이터 댐과 지능형(AI)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을 구성하는 한 축인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새로운 자본이자 성장 동력이다. 우선 가치 있는 데이터로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경제의 부가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데이터 댐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구성한 집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하면 더 똑똑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수 있고, 5G 통신과 융합하여 실감 나는 가상현실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기반 인공지능(AI) 융합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형(AI)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능형(AI) 정부를 위해 우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및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다. 고성능 와이파이/디지털 기기 등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에 2025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에 2025년까지 2조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3만 4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대한 추진과제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즉,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를 시행한데 이어 EMR 프로그램 성능 개선도 지원한다.

2025년까지 18개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간질환, 폐암, 당뇨 등 등 12개 질환을 인공지능(AI)이 정밀 진단해주는 닥터앤서 2.0도 도입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SOC 디지털화 등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와 더불어 도시, 산단, 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SOC 디지털화에 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9만 3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SOC 디지털화에 대한 추진과제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와 디지털 트윈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또한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3 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전국 3 차원 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결국에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거나 재정립 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새로운 자본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디지털화로 전환은 대세 흐름이 되었으며, 코로나 19 가 그 전환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이션으로 인하여 산업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산업재편의 신호탄일 될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화와 일자리 창출은 상반된 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일자리 창출 보다는 산업재편이 보다 연착륙 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편과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라는 효율성 기반 하에서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 및 창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표3.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1.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5.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7.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10.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2. 전 산업 5G, AI 융합 확산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11. 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3. 5G, AI 기반 지능형(AI)정부	6.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4. K-사이버 방역 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그림2. 데이터 댐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II. 그린뉴딜 테마 펀드

1. 한국판 뉴딜 펀드: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9 월 3 일 개최된 제 1 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정부 예산은 물론 연기금/정책금융기관, 민간의 참여로 20 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와 개별 금융기관이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개발해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되었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현재 벤처투자를 위해 마련된 모태펀드와 같은 형태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국민이나 금융기관이 매칭 형태로 참여하는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5 년 동안 정부 출자 3 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 조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 13 조원 등 총 20 조원 규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서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의 경우 뉴딜 관련 기업(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과 더불어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 민자사업,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이다. 이를 위해 9 월 말까지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 및 업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뉴딜인프라펀드의 경우 정책형 뉴딜펀드, 민간 자원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하여 조성 및 육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투자 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딜인프라펀드의 투자처로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센터, 스마트공동 물류센터를, 그린 뉴딜의 경우 수소충전소, 육상/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이 스스로 뉴딜투자처를 발굴해 민간 뉴딜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RE100/ESG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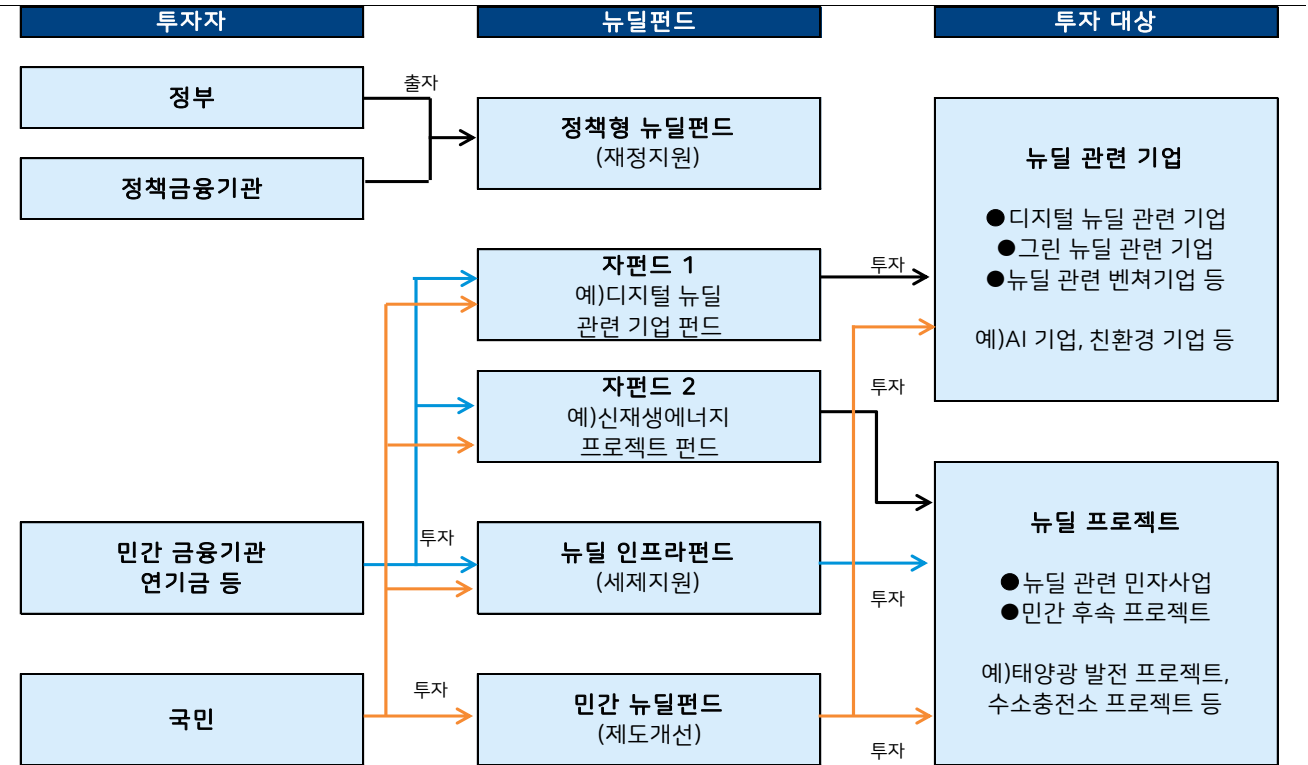
무엇보다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등을 유도 할 예정이다.

그림3. 뉴딜펀드 체계

기본 방향	1. 정책형 뉴딜펀드 + 뉴딜 인프라펀드 + 민간 뉴딜펀드 → 3가지 축			
	2. 민/관의 역할 분담		3. 국민과의 성과 공유	
세부 추진 방향	■(정부) 재정 통한 위험 부담, 세제지원,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민간) 자율적 상품 개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등 공모 활성화 ■민간의 자율적 펀드 조성 유도 ■퇴직연금 연계 확대	
세부 구조	1. 유형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2. 조성 방안	■정보 등 출자 + 민간 자금 매칭	■정책형 뉴딜펀드 子펀드 방식 + 민간 인프라펀드	■민간의 자발적 투자처 발굴 및 펀드 결성
	3. 유인 체계	■재정을 통한 후순위 출자 *투자 위험 부담	■세제지원 ■프로젝트 발굴	■시장 여건 조성 *현장으로 해소 지원 및 제도 개선
	4. 투자 대상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뉴딜 인프라사업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기업
	5. 성과 공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子펀드 결성에 참여 ■[국민참여펀드] 조성	■공모방식 확산 *공모인프라펀드에 한해 세제혜택 부여 ■퇴직연금 연계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 *민간에서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 자율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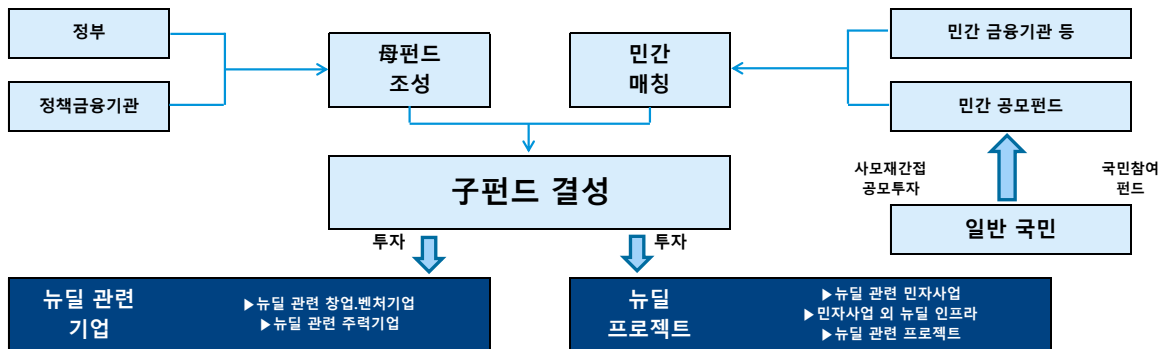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그림4. 뉴딜펀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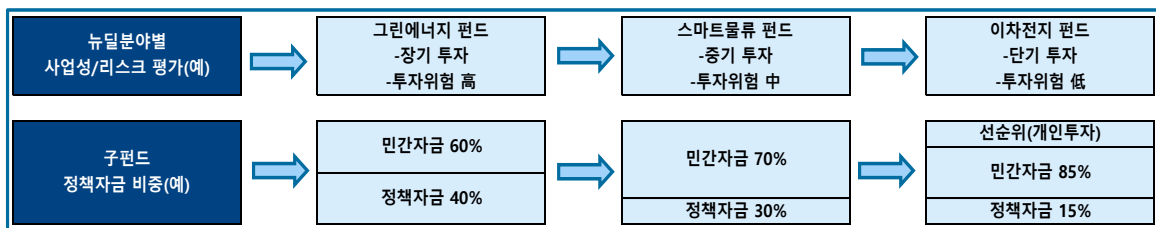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그림5. 정책형 뉴딜펀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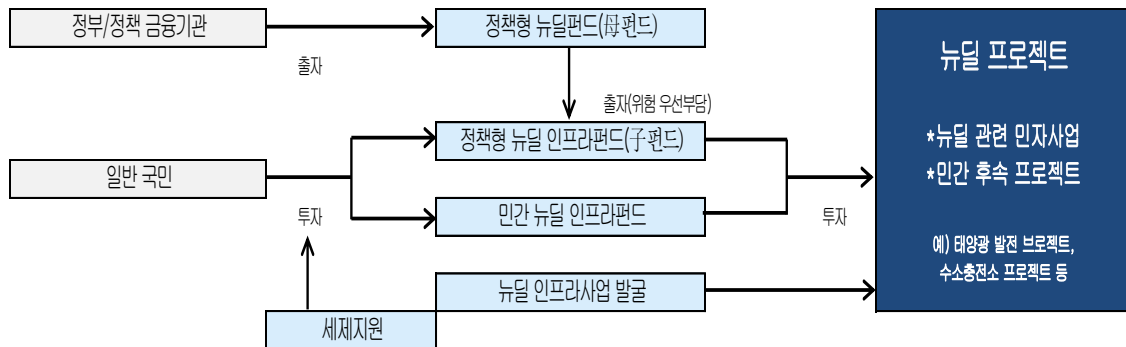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그림6. 뉴딜 분야별 자펀드 구조(예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그림7. 인프라 펀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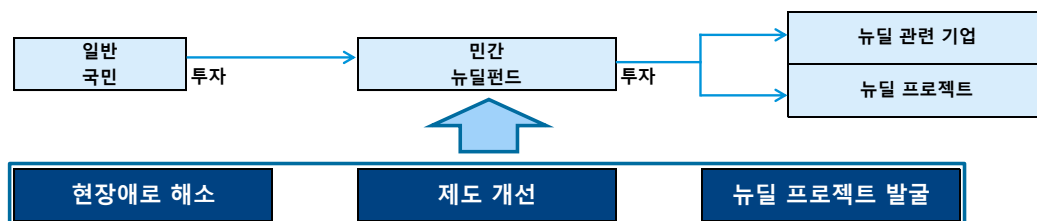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표4. 뉴딜 인프라사업(예시)

디지털 뉴딜 관련	그린 뉴딜 관련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데이터센터 *공동활동 비대면 업무지원시설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확충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그림8. 민간 뉴딜펀드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하이투자증권

2. K-뉴딜지수 및 디지털 뉴딜 테마 펀드

한국거래소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비전을 구체화 한다는 측면에서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산업을 기반으로 개발한 KRX BBIG K-뉴딜지수 5 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5 종 가운데 4 개 지수는 KRX 2 차전지 K-뉴딜지수, KRX 바이오 K-뉴딜지수, KRX 인터넷 K-뉴딜지수, KRX 게임 K-뉴딜지수 등으로 각각 10 개 종목을 포함한다.

또한 KRX BBIG K-뉴딜지수는 4 개 지수에서 상위 종목 3 개를 추려 12 개 종목으로 구성한 것이다. 배터리 업종에서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바이오 업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인터넷 업종에서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즈온, 게임 업종에서 엔씨소프트, 넷마블, 펠어비스 등이 들어갔으며, 지수 내 비중은 모두 12 분의 1 로 같다.

BBIG 산업 관련 10 개 주요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8 월말 기준 322 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20.4%를 차지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돕기 위해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도 10 월 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자산 운용사들이 뉴딜 테마 펀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9 월 7 일 ESG 주식형 펀드인 100 년기업그린코리아를 시장에 내놓았으며, 삼성자산운용은 삼성뉴딜코리아펀드를 9 월 15 일부터 판매하였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0 월 7 일 KRX BBIG K-뉴딜지수 관련 총 5 개의 ETF 를 동시에 내놓을 예정이며,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KB 자산운용 등도 뉴딜 ETF 등 출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정책과 맞물리면서 디지털 뉴딜 테마 펀드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관련 산업 성장은 물론 주식시장 상승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9. KRX BBIG K-뉴딜지수 5 중 구성종목



자료: 한국거래소, 하이투자증권

Ⅲ. 디지털 뉴딜 유망종목 + 2 선

현대오토에버(307950)

케이아이엔엑스(093320)

현대오토에버 (307950)

NR

액면가	500 원
종가(2020/09/18)	60,300 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0십억원
발행주식수	2,100만주
시가총액	1,266십억원
외국인지분율	1.1%
52주 주가	21,800~60,500 원
60일 평균 거래량	127,717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6.2십억원

주요 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7.1	55.6	138.3	15.3
상대수익률	44.3	42.5	86.7	-1.2



FY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십억원)	1,336	1,473	1,425	1,572
영업이익(십억원)	80	73	70	80
순이익(십억원)	64	54	54	56
EPS(원)	3,120	2,600	2,614	2,673
BPS(원)	17,959	19,927	21,602	24,259
PER(배)				18.9
PBR(배)				2.1
ROE(%)	18.7	13.7	12.6	11.7
배당수익률(%)			1.1	1.2
EV/EBITDA(배)	0.0	0.1	0.1	8.3

주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디지털 뉴딜 및 전략사업 성장성 가시화

현대차그룹 계열의 SI 업체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 허브 플랫폼으로 성장성 가시화 될 듯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중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 되는 과제는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 댐은 마치 물을 모아 방류하는 댐처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형태로 가공하여 모아두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데이터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허브가 필요하다. 데이터 허브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이를 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이다.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허브의 역할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동사는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현재 베타 버전을 개발해 테스트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데이터 허브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사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데이터 저장소가 만들어지면 정부 주관의 데이터바우처 사업(데이터 판매/가공 공급기업을 모집하는 사업)에 참여해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그룹사와 협력사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결국에는 동사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향후 성장성 등이 가시화 될 것이다.

글로벌 One IT,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빌딩 등 전략사업으로 실적 성장 지속될 듯

동사는 글로벌 One IT,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빌딩 등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스마트 모빌리티 관점에서는 사업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으며 그 중에서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 및 부품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스마트 팩토리 ICT 통합 솔루션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동사는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의 관련 수주가 향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환경하에서 디지털 뉴딜로 성장성 가시화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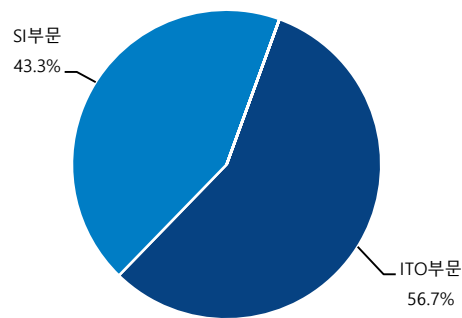
현재 동사 주가는 올해 및 내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각각 PER 19.7 배, 17.7 배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되는 환경하에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성장성 가시화 등이 동사 주가 상승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5. 현대오토에버 실적 추이 및 전망

FY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세전이익(억원)	순이익(억원)	지배주주순이익(억원)	EPS(원)	PER(배)
2017	14,734	729	767	552	537	2,600	
2018	14,249	702	751	552	540	2,614	
2019	15,718	802	834	569	559	2,673	18.9
2020E	16,183	906	936	655	643	3,062	19.7
2021E	18,111	1,008	1,043	730	717	3,414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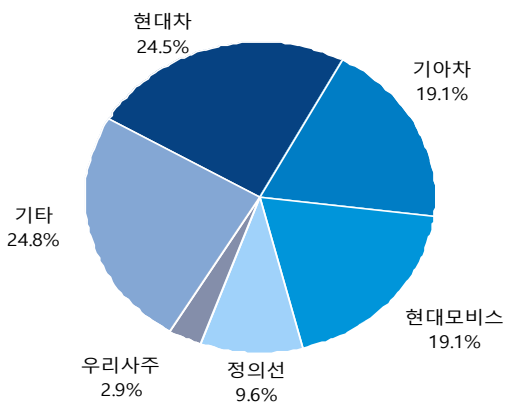
자료: 현대오토에버, 하이투자증권

그림10. 현대오토에버 매출 구성(2020년 상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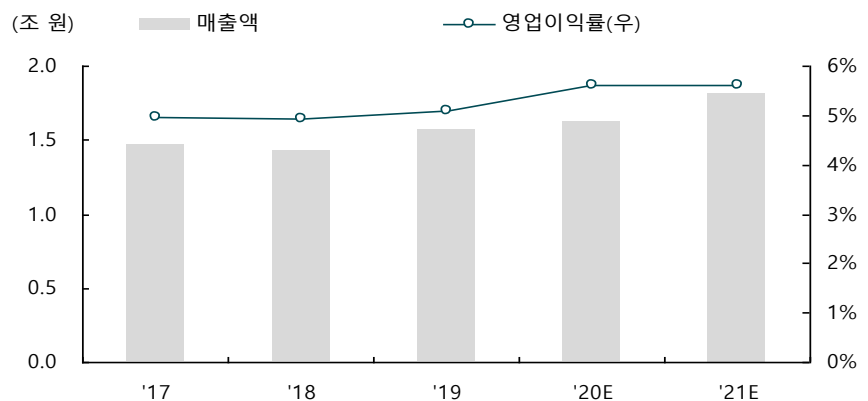
자료: 현대오토에버, 하이투자증권

그림11. 현대오토에버 주주 분포(2020년 6월 30일 기준)



자료: 현대오토에버, 하이투자증권

그림12. 현대오토에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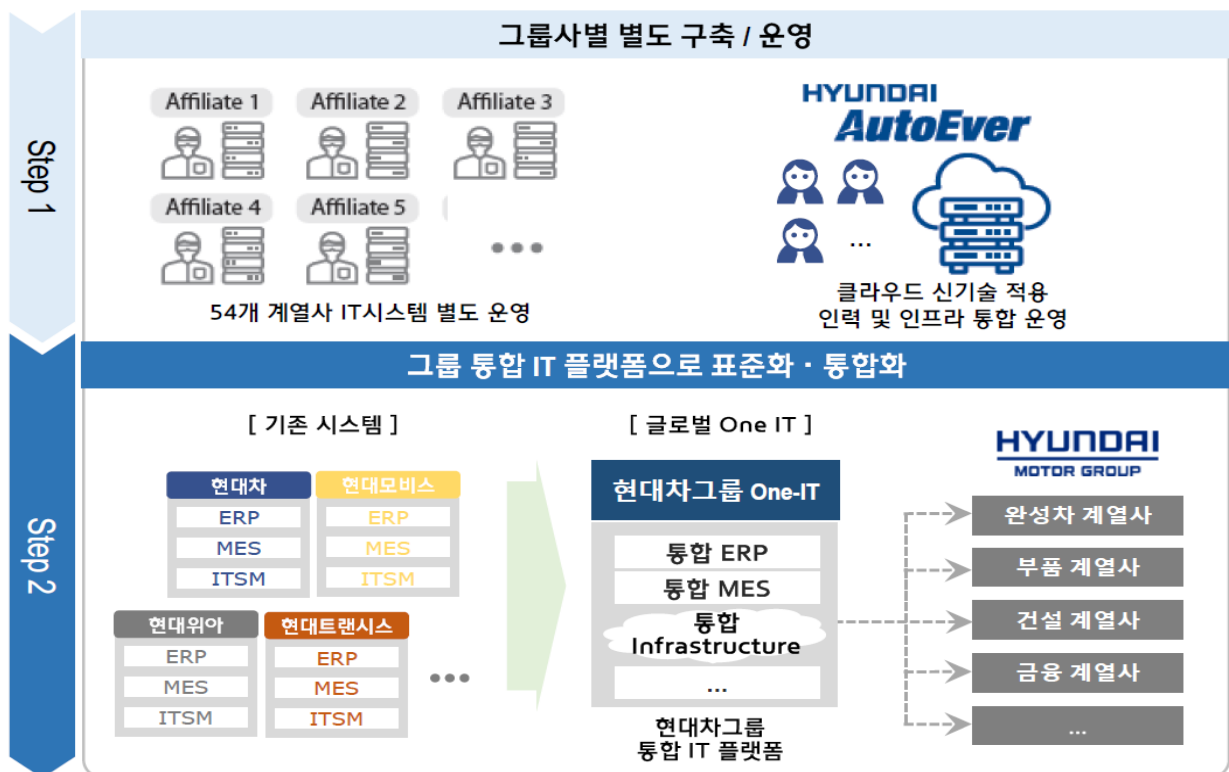
자료: 현대오토에버, 하이투자증권

그림13. 데이터 댐을 만들어주는 데이터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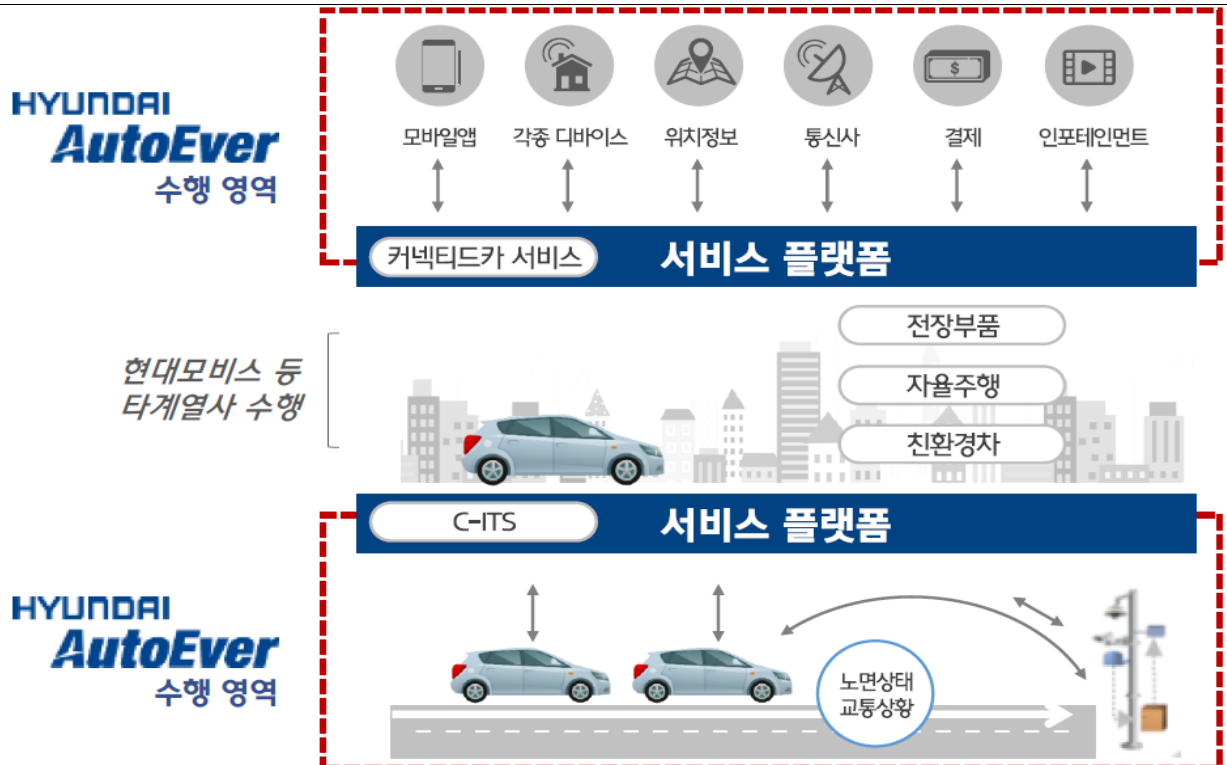
자료: 현대오트오버, 하이투자증권

그림14. 현대오트오버 글로벌 One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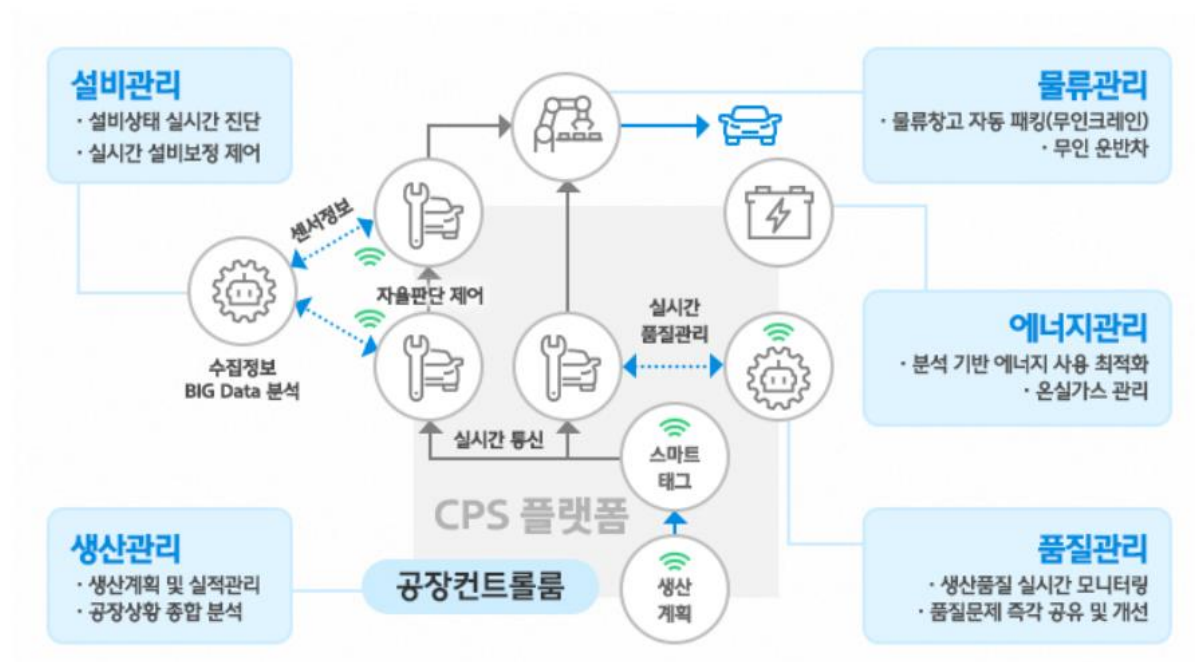
자료: 현대오트오버, 하이투자증권

그림15. 현대오트모에버 스마트 모빌리티



자료: 현대오트모에버, 하이투자증권

그림16. 자동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패키지



자료: 현대오트모에버, 하이투자증권

그림17.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자료: 현대오트메버, 하이투자증권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688	681	690	739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4	230	240	66
단기금융자산	29	9	9	209
매출채권	451	427	398	408
재고자산	-	1	1	5
비유동자산	108	123	140	288
유형자산	58	60	75	74
무형자산	37	37	42	51
자산총계	796	804	829	1,027
유동부채	418	380	368	399
매입채무	296	253	219	183
단기차입금	-	-	2	2
유동성장기부채	-	-	-	-
비유동부채	4	8	9	113
사채	-	-	-	-
장기차입금	-	-	3	102
부채총계	422	388	377	512
자배주주지분	373	415	451	514
자본금	10	10	10	11
자본잉여금	15	15	15	32
이익잉여금	347	392	426	471
기타자본항목	-	0	-	-
비자배주주지분	1	1	1	1
자본총계	374	416	452	515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19	2020E	2021E	2022E
영업활동 현금흐름	69	50	46	80
당기순이익	65	55	55	5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0	10	9	41
무형자산감가상각비	3	5	5	7
지분법관련손실(이익)	2	0	0	0
투자활동 현금흐름	-52	3	-27	-228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28	-14	-21	-16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2	2	5	7
금융상품의 증감	-27	-36	-4,468	-106,147
재무활동 현금흐름	-14	-14	-9	-27
단기금융부채의증감	-2	-2	0	-
장기금융부채의증감	102	102	99	-
자본의증감	56	42	36	63
배당금지급	-14	-14	-14	-15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11	36	11	-17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83	194	230	24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94	230	240	66

포괄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1,336	1,473	1,425	1,572
증가율(%)	2.9	10.3	-3.3	10.3
매출원가	1,193	1,319	1,279	1,408
매출총이익	143	154	146	164
판매비와관리비	63	81	75	83
연구개발비	-	-	4	8
기타영업수익	-	-	-	-
기타영업비용	-	-	-	-
영업이익	80	73	70	80
증가율(%)	17.9	-9.3	-3.8	14.3
영업이익률(%)	6.0	4.9	4.9	5.1
이자수익	3	3	4	5
이자비용	0	-	0	4
지분법이익(손실)	2	0	0	0
기타영업외손익	2	0	1	2
세전계속사업이익	87	77	75	83
법인세비용	23	22	20	26
세전계속이익률(%)	6.5	5.2	5.3	5.3
당기순이익	65	55	55	57
순이익률(%)	4.8	3.7	3.9	3.6
자배주주귀속 순이익	64	54	54	56
기타포괄이익	3	1	-5	5
총포괄이익	68	56	50	62
자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68	55	49	61

주요투자지표

	2019	2020E	2021E	2022E
주당지표(원)				
EPS	3,120	2,600	2,614	2,673
BPS	17,959	19,927	21,602	24,259
CFPS	3,781	3,288	3,322	4,933
DPS			690	710
Valuation(배)				
PER				18.9
PBR				2.1
PCR				10.2
EV/EBITDA	0.0	0.1	0.1	8.3
Key Financial Ratio(%)				
ROE	18.7	13.7	12.6	11.7
EBITDA 이익률	7.0	5.9	6.0	8.1
부채비율	113.1	93.4	83.6	99.4
순부채비율	-59.6	-57.4	-54.1	-33.2
매출채권회전율(x)	3.1	3.4	3.5	3.9
재고자산회전율(x)	-	5,072.8	2,459.6	580.2

자료 : 현대오트모에,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현대오토에버
최근 2년간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 주가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2020-09-18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이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20-06-30 기준

구분	매수	종립(보유)	매도
투자 의견 비율 (%)	90.5%	9.5%	-

케이아이엔엑스 (093320)

NR

액면가	500 원
종가(2020/09/18)	88,100 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2십억원
발행주식	488만주
시가총액	430십억원
외국인지분율	35.4%
52주 주가	29,550~95,000 원
60일 평균 거래량	95,71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6.8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3.0	48.1	121.9	172.3
상대수익률	31.9	27.5	38.7	134.5



FY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십억원)	44	47	56	65
영업이익(십억원)	8	9	13	16
순이익(십억원)	6	6	12	15
EPS(원)	1,182	1,324	2,501	3,083
BPS(원)	11,091	12,310	14,665	17,420
PER(배)	11.8	10.4	9.6	11.8
PBR(배)	1.3	1.1	1.6	2.1
ROE(%)	11.4	11.8	19.6	20.1
배당수익률(%)	0.3	0.2	0.4	0.6
EV/EBITDA(배)	6.6	6.0	7.7	6.4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IDC와 클라우드 허브로 성장성 가시화

토탈 인터넷 인프라 전문기업

동사는 지난 2000 년에 설립된 인터넷 인프라 전문기업으로 중립적 인터넷회선연동(IX:Internet eXchange)서비스를 시작으로 IDC(Internet Data Center),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클라우드 솔루션 등 토탈 인터넷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IDC 성장 지속될 듯

IDC(Internet Data Center)는 기업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물리적인 안정성과 네트워크 확장성을 갖추어 아웃소싱의 형태로 의뢰 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의뢰한 기업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일반 대중 및 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달해 주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말한다.

동사는 설립초기부터 IX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자체 IDC 도곡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7 개의 IDC 를 구성하여 각 센터간 네트워크 POP 을 설치하였으며, 각 센터를 통해 IX, 코로케이션, 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같은 IDC 의 경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둘 수 있는 공간 임대 및 관리서비스 등과 더불어 데이터 사용량에 연동되어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CAPA 하에서는 고객사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 여부가 동사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언택트 트렌드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동사는 과천에 2023 년 완공을 목표로 IDC 착공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CAPA 증설을 토대로 향후 매출 성장성 등이 가시화 될 것이다.

연결성 증가가 클라우드 허브로 도약시킬 듯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맞춰 동사는 클라우드 허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CP) 등에게 제공하는 회선 연동 서비스인 IX 피어링에 기반해 KT, NBP, AWS, MS, 구글, 오라클, IBM 등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과 연계해 멀티(기업의 IT 자원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결) 및 하이브리드(복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결성 증가가 클라우드 허브로 도약 시키면서 향후 성장성 등이 가시화 될 것이다.

IDC와 클라우드 허브로 성장성 가시화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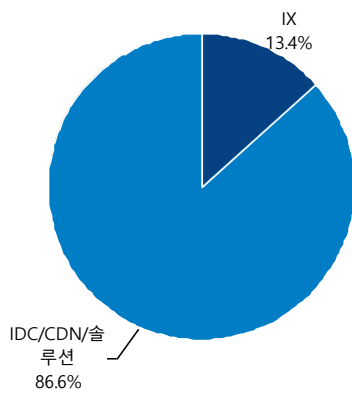
현재 동사 주가는 올해 및 내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각각 PER 24.4 배, 20.5 배로 거래되고 있다. IDC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하에서 언택트 트렌드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성 증가가 클라우드 허브로 도약시키면서 성장성 등이 가시화 될 것이다.

표6. 케이아이엔엑스 실적 추이 및 전망

FY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세전이익(억원)	순이익(억원)	지배주주순이익(억원)	EPS(원)	PER(배)
2017	473	92	81	67	65	1,324	10.4
2018	563	132	144	125	122	2,501	9.6
2019	646	165	188	157	150	3,083	11.8
2020E	733	195	215	180	176	3,606	24.4
2021E	846	235	255	213	210	4,303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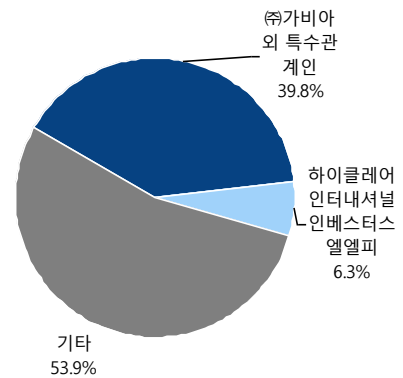
자료: 케이아이엔엑스, 하이투자증권

그림18. 케이아이엔엑스 매출 구성(2020년 상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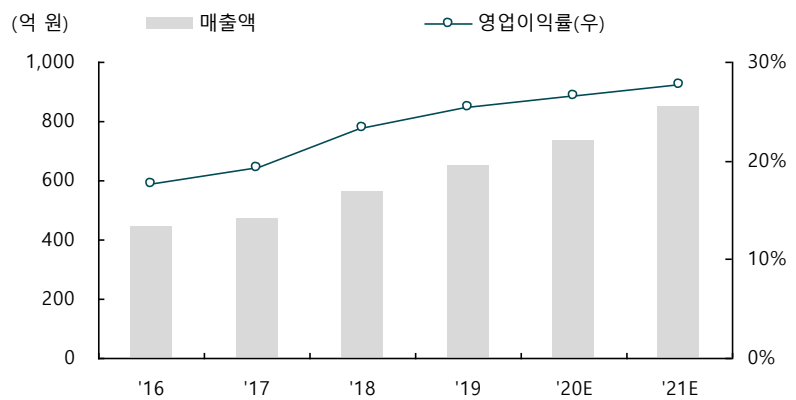
자료: 케이아이엔엑스, 하이투자증권

그림19. 케이아이엔엑스 주주 분포(2020년 6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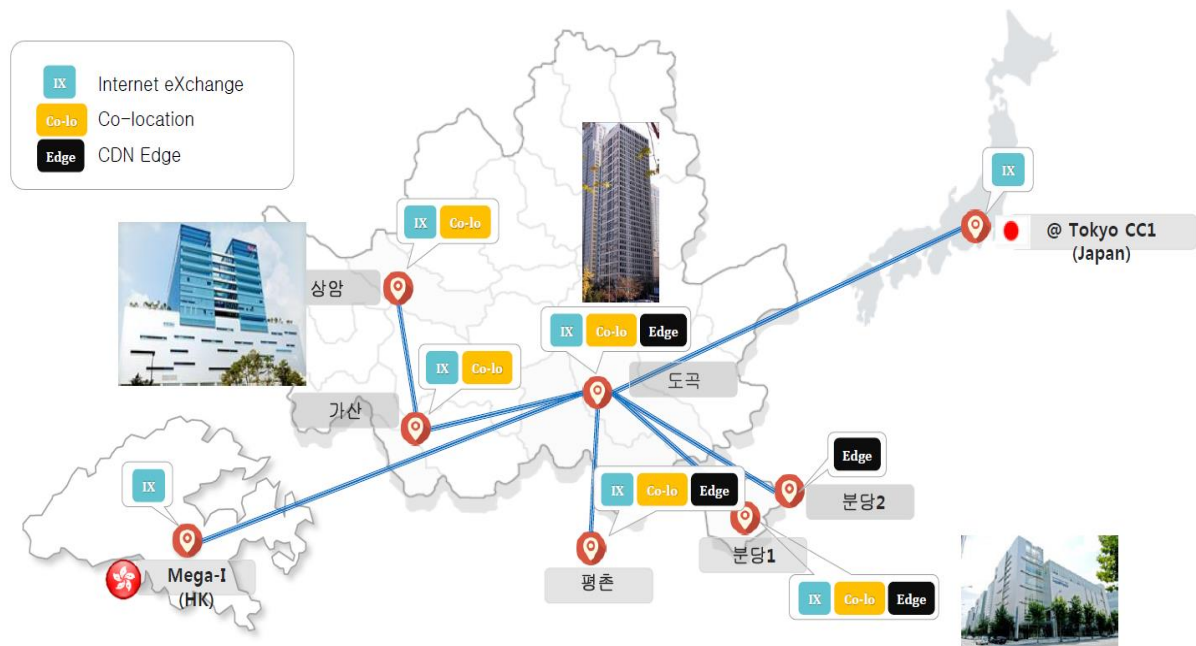
자료: 케이아이엔엑스, 하이투자증권

그림20. 케이아이엔엑스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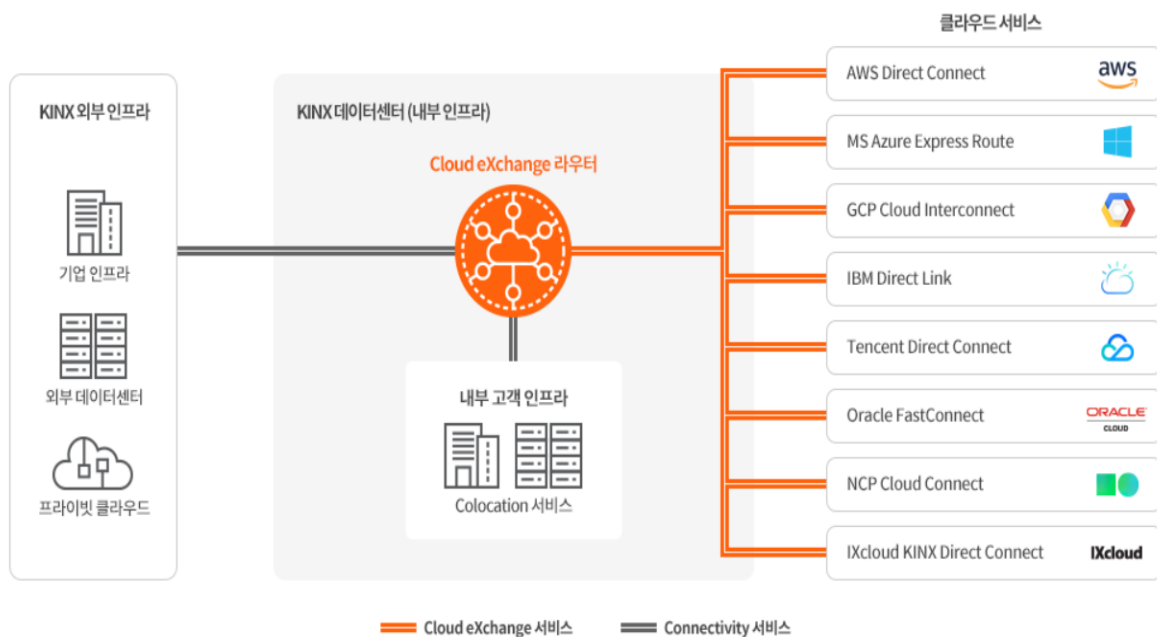
자료: 케이아이엔엑스, 하이투자증권

그림21. 케이아이엔엑스 IDC 지역별 현황



자료: 케이아이엔엑스, 하이투자증권

그림22. 케이아이엔엑스 클라우드 허브 구성도



자료: 케이아이엔엑스, 하이투자증권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36	40	46	55
현금 및 현금성자산	14	17	16	16
단기금융자산	16	14	16	8
매출채권	6	9	8	9
재고자산	-	-	-	-
비유동자산	24	26	31	50
유형자산	10	11	12	31
무형자산	2	1	0	2
자산총계	60	65	77	105
유동부채	5	6	6	13
매입채무	3	4	1	2
단기차입금	-	-	0	-
유동성장기부채	-	-	0	-
비유동부채	0	0	1	7
사채	-	-	-	-
장기차입금	-	-	1	7
부채총계	5	7	7	20
자배주주지분	54	58	70	84
자본금	2	2	2	2
자본잉여금	11	11	11	11
이익잉여금	41	47	58	71
기타자본항목	-1	-3	-3	-3
비자배주주지분	1	1	1	1
자본총계	55	59	70	85

포괄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44	47	56	65
증가율(%)	4.9	7.0	19.1	14.8
매출원가	24	25	29	34
매출총이익	20	22	27	31
판매비와관리비	13	13	14	14
연구개발비	2	3	-	-
기타영업수익	-	-	-	-
기타영업비용	-	-	-	-
영업이익	8	9	13	16
증가율(%)	9.9	17.3	43.8	25.1
영업이익률(%)	17.6	19.4	23.4	25.5
이자수익	0	1	1	0
이자비용	-	-	0	0
지분법이익(손실)	0	-	-	-
기타영업외손익	-1	-2	0	2
세전계속사업이익	7	8	14	19
법인세비용	1	1	2	3
세전계속이익률(%)	16.1	17.0	25.6	29.0
당기순이익	6	7	12	16
순이익률(%)	14.3	14.2	22.1	24.3
자배주주귀속 순이익	6	6	12	15
기타포괄이익	-	0	0	0
총포괄이익	6	7	12	16
자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6	6	12	15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 현금흐름	11	10	13	26
당기순이익	6	7	12	1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2	2	12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지분법관련손실(이익)	0	-	-	-
투자활동 현금흐름	-8	-3	-14	-17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2	-3	-4	-11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0	0	0	0
금융상품의 증감	-2	6	15	22
재무활동 현금흐름	0	-3	0	-8
단기금융부채의증감	-1	-	1	-
장기금융부채의증감	7	7	7	-
자본의증감	6	4	12	14
배당금지급	0	-1	-1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3	3	-1	0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1	14	17	1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4	17	16	16

주요투자지표

	2016	2017	2018	2019
주당지표(원)				
EPS	1,182	1,324	2,501	3,083
BPS	11,091	12,310	14,665	17,420
CFPS	1,747	1,830	2,986	5,519
DPS	120	220	400	500
Valuation(배)				
PER	11.8	10.4	9.6	11.8
PBR	1.3	1.1	1.6	2.1
PCR	8.0	7.5	8.0	6.6
EV/EBITDA	6.6	6.0	7.7	6.4
Key Financial Ratio(%)				
ROE	11.4	11.8	19.6	20.1
EBITDA 이익률	23.9	24.6	27.6	43.9
부채비율	9.5	11.1	9.5	24.0
순부채비율	-53.6	-51.9	-43.4	-20.2
매출채권회전율(x)	7.8	6.4	6.8	7.7
재고자산회전율(x)	-	-	-	-

자료 : 케이아이엔엑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케이아이엔엑스
최근 2년간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 주가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2020-04-20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이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 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20-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0.5%	9.5%	-